

# '97 쌀 생산대책 추진본부 운영 계획

## Operation of Task Force Team for '97 Rice Production Policy

이 봉 훈\*  
Lee, Bong-hoon

### 1. 1월 6일부터 풍년농사를 위한 "97 쌀 생산대책 추진본부" 조기가동

농림부는 「'97 쌀 생산대책 추진본부」를 조기에 설치하고 2년연속 풍년달성을 위한 영농대책에 본격 돌입하기로 하였다.

「'97 쌀 생산대책 추진본부」는 농림부 농업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, 농산정책심의관(쌀생산대책 총괄), 농촌개발국장(용수확보대책), 농촌진흥청 기술지도국장(양질다수품종 재배 확대 및 다수확 기술지도), 농협중앙회 양곡담당 부회장보(영농자재 공급), 농어촌진흥공사 기반조성본부장(간척지 비재배 확대) 등 관련기관 국장(이사)급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각 기관별 업무분담을 통해 풍년농사를 위한 효율적인 총력지원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.

### 2. 지방에도 각급 기관별로 381 개소에 「쌀생산대책 상황실」 설치 운영

농진청을 비롯한 각급 지도기관, 시·도, 시

· 군농 행정기관, 농협중앙회 및 각 지역지부, 농어촌진흥공사 등 381개소에는 중앙의 「쌀 생산대책 추진본부」와 연계하여 「쌀 생산대책 상황실」을 설치하여 연중 운영하기로 하였으며, 전국적으로 2,210명이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여 돌발적인 기상재해에 만전을 기하고 병충해 방제 등 알뜰영농 추진으로 기필코 풍년농사를 달성하기로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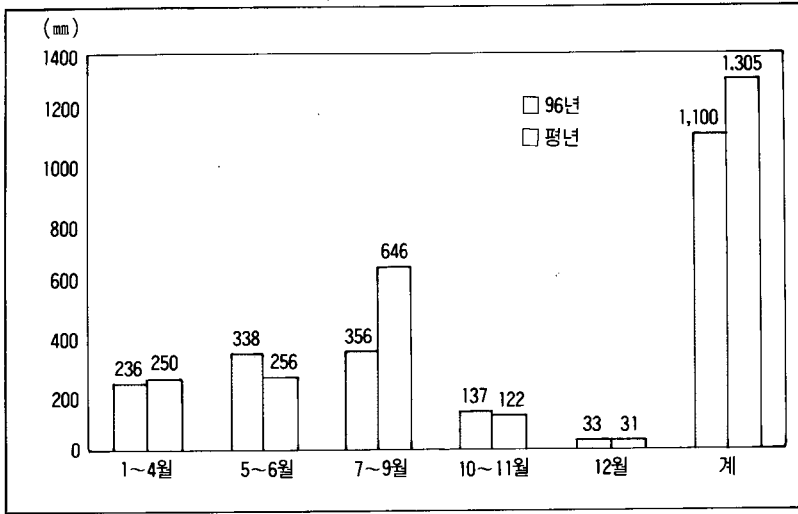
### 3. 영농단계별로 차질없는 대책 추진

농림부는 풍년농사를 위해 단계별로 철저한 대책을 세워 1월부터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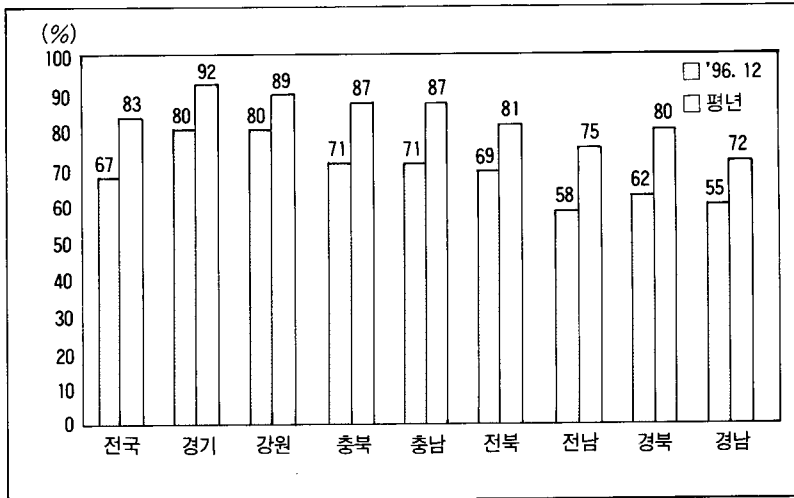
#### (1) 1단계 : 1~3월, 영농준비

- 일선공직자, 농업인에 대한 교육(1~3월)
- 양질다수성품종 공급확대
- 비료·농약등 주요영농자재 적기공급
- 농기계 순회 봉사 실시
- 가뭄대비 용수확보대책 추진

\* 농림부 농촌용수과



'96 월별 강수량



도별 저수율 현황('96. 12말 현재)

(2) 2단계 : 4~6월, 모내기

- 벼 재배 면적 확보(휴경논 생산화, 간척지 벼재배 등)
- 적기 못자리 설치
- 적기 모내기 및 포기수 확보 추진
- 봄철 농촌 일손돕기운동 실시
- 모내기 용수확보 추진

(3) 3단계 : 7~9월, 재배관리

- 피, 병충해방제 등 “깨끗한 들판 만들기” 운동 전개, 태풍 등 풍수해대책 추진
- 시비, 물관리 등 재배관리지도

(4) 4단계 : 10~11월, 수확조제

- 가을철 농촌일손돕기운동 추진
- 적기수확 및 수확작업시 손실방지 대책추진
- 적정건조 온도유지 지도(미질저하 방지)

### 4. 금년 쌀생산 목표 3,380만석 이상을 달성해야 지속적인 자급 기반 유지

정부는 금년도 쌀생산 목표를 작년도 목표보다 10만석이 늘어난 3,380만석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최근 매년 4~5만ha씩 감소하고 있는 재배면적을 금년에는 전년대비 5천ha 감소한 1,045천ha를 확보하고 단위수량도 작년 목표보다 6kg 증가한 466kg을 달성하기로 하였다.

#### (1) 재배면적 확보

- 우량논에 대한 벼 재배 유도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안의 벼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특별 경영자금 5천억원을 지원
- 가경작, 일시경작 등을 통해 간척지 벼 재배를 '96년보다 4천ha 늘린 28천ha로 확대
- 휴경논 14천ha중 벼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6천ha를 대상으로 영농자재, 간이정비 등 각종지원을 추진하여 생산화하고 생산화된 휴경논에 대하여 영농자금 200억 원을 별도지원
- 우량논 잠식억제를 위해 타작물 논재배 및 시설설치시 정책자금을 차등지원하고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에 의거 불요불급한 전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산지 개발을 촉진
- 밭 기반 정비를 적극 확대('97년 8천ha)하고 원예·유통시설사업 등을 밭 기반정비와 연계
- 저수율이 낮은 전남·경북 등 가뭄지역에 대해서는 1월부터 사전 가뭄대책 추진

#### (2) 단위수량 증대

- 겨울철 철저한 농업인 교육·홍보를 통해 양질다수성 품종재배를 '96년 417천ha(전체 재배면적의 40%)에서 575천ha(55%)로 확대
- 벼 포기수를 평당 80주 이상 확보하기 위한 이앙기조절 및 전문경영체 교육 실시
- '97 중점관리 병해충 및 잡초를 지정하여 지역별로 공동방제 추진
- 토양개량제를 기존의 50% 보조에서 전액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6년 1주기로 전체 농경지를 개량

이외에 정부는 쌀 재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규모화 촉진 직접 지불제를 '97년에 처음으로 도입(12천ha, 310억원)하고 쌀값 계절 진폭을 15%까지 확대하는 등 민간유통 기능을 활성화하며 현재 220개소인 미곡종합처리장을 2000년까지 주요 들녘별로 400개소 설치하여 벼 농사를 손쉽고 적절한 소득이 보장되는 품목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다.

### 약 력

#### 이 봉 훈



- 1981.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공학과 졸업
- 1985. 화란 국제수리공학과정 수료
- 1991.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학석사
- 현재 농림부 농촌융수과 토목사무관  
KCID 편집 및 학술분과위원